

전쟁 피해복구 및 재건기

(1953.7~1961.5)



한강대교 복구 지원



3년간에 걸쳐 치열했던 전쟁이 통일을 열망한 국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정 조인으로 끝남에 따라 정부는 1953년 8월 15일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서울로 환도하였다.

3년간 지속된 한국전쟁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다. 인명피해는 사상자가 약 150만명에 달하였고 20만명의 행방불명과 25만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10만명 이상의 주요 인사가 남북당하였다.

재산상 총 피해액은 약 18억불 내지 3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공업시설은 42%, 발전시설은 41%, 탄광시설은 50%, 주택은 3분의 1이 파괴되었다. 그 외 도로, 공공건물, 교량, 공항, 항만, 공장,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어 국토는 초토화되었다.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함께 북한의 재침략에 대비하여 미국정부와 합의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1953년 10월 1일 체결하고 국군의 군사력 증강과 경제재건을 위한 대미(對美) 원조를 촉진시키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한편, 북한이 휴전협정상의 군비증강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계속 군비증강을 추진하자, 유엔군측도 1957년 6월에 이르러 이 조항의 준수 의무를 포기하고 국군의 신형장비도입 등 군비확충을 추진하였다.

육군은 전방작전, 후방지원, 교육훈련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1953년 12월 제1군사령부를, 1954년 7월과 10월에 교육총본부와 제2군사령부를 각각 창설하였다. 이에 따라 제1군사령부는 5개 군단과 20개 사단을 지휘하여 전방 방어를 전담하였고, 제2군사령부는 휴전 후 새로 편성된 5개 군관구(軍管區)와 10개 예비사단 그리고 군수기지부대를 예속받아 후방지원과 후방지역 방어 임무를 담당하였으며, 교육총본부는 훈련소와 각 병과(兵科) 학교를 장악하여 교육훈련을 전담하였다.

이러한 육군의 부대구조는 1958년도까지 계속되었으나, 1958년도 말에는 감군(減軍)정책의 시행과 군수지원체제와 교육훈련체제의 개선에 의해 교육총본부를 해체하는 등 기구의 개편을 단행하여 제1군, 제2군, 군수기지사령부 체제로 재정립하였다. 이 때, 제1군은 5개 군단 18개 사단으로 편성되었으며, 제2군은 4개 군관구, 10개 예비사단 및 전투병과교육사령부로 구성되었고 군수기지사령부는 각 병과별 지원기지창(廠)으로 편성되었다.

해군은 1960년도까지 한국 함대사령부에 2개 전단(戰團), 2개 전대 그리고 함대훈련단과 항공대로 증편함과 아울러 통제부(統制府)와 경비부(警備府)를 정비하고, 공창의 시설능력도 확장하였다.

따라서 DE 2척을 주축으로 115척의 함정을 확보하였으며, 병력도 7천7백명에서 1만 6천명으로 증원시켰다.

해병대도 제1해병사단을 비롯한 1개 여단 및 도서(島嶼)부대와 포항·진해기지사령부 외에 제2상륙훈련단을 그리고 제1연대를 기간으로 한 제1임시여단을 창설하였

으며, 병력은 2만 3천764명, M-47전차, 105밀리 곡사포 등의 중장비와 LVT 등 상륙용 장비 그리고 O-1, U-6 등 관측용 항공기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공군은 휴전 후 제1차 목표였던 제10전투비행단의 체트화를 추진하여 1955년에 미국으로부터 F-86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관제경보대와 항로보안단(航路保安團)을 창설하여 영공방위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그 후, 1958년에는 제11전투비행단과 정찰비행대대, 전술통제비행전대, 구조비행대대가 계속 창설되어 1960년에 이르러 현대적인 전술공군체제로 발전하였다. 당시, 공군의 병력은 2만 2천57명, 장비는 F-86기 168대를 포함하여 총 274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1960년까지의 국군병력은 1958년에는 72만명 수준까지 상회하였으나, 1959년에 이를 다시 조정하여 63만명으로 유지하게 되었다.

한편, 이 기간중 제도적으로 발전된 부문은 1954년에 육·해·공군의 기본병과를 비롯한 각종 기술병과 교육이 시행되면서 작전, 군수, 교육의 3개 분야로 구분하는 지도체제로 개편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병력관리를 병과별로 실시하도록 제도화되었으며, 국방부 직제 내에 조직되었던 육군 및 해군본부가 독립체제로 개편되어 육군본부와 해군본부 직제로 법제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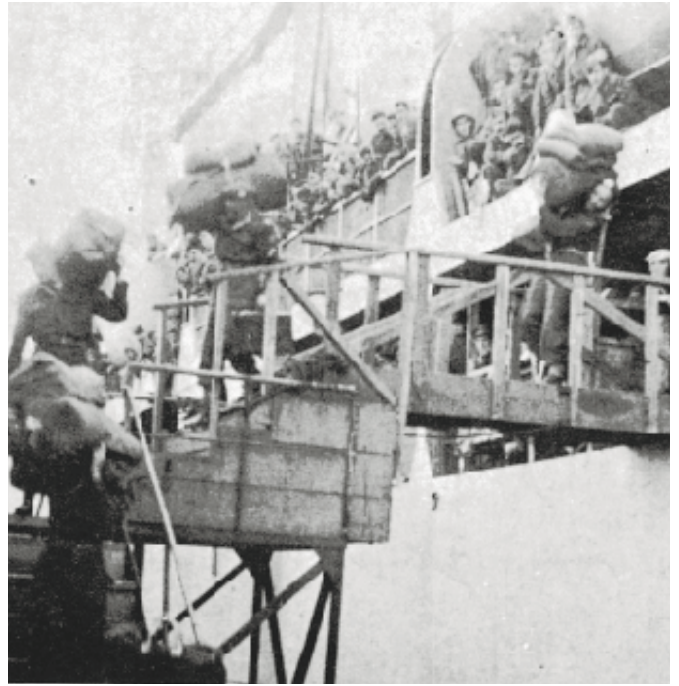
1960년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과 함께 장기복무 장병에 대한 제대 후의 생활보장책이 제도화됨으로써 최초로 연금법의 혜택을 입는 장교 전역이 이루어져 국군의 병력 균형유지와 질적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기간중 시행된 주요 인사관리제도는 정규 군인신분령을 비롯하여 상전(賞典) 및 복장제도를 포함한 영(令), 규정, 세칙 등 56건에 달하였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1953년 7월 휴전 성립을 전후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북한의 재침에 대비한 한·미 군사동맹을 촉구했다. 이에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 조인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국은 육·해·공군을 한국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 한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공동으로 방위하게 되었다.



❶ 귀국하기 위해 부산항에서 승선(乘船)하는 유엔군(1953. 8)

❷ 한·미 상호방위조약 조인(1953. 8. 8)

변영태 외무장관과 달레스 미 국무장관이 경무대에서 이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하고 있다. 정식 조인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되었다.





④ 제1군 창설(1953. 12. 15. 강원 인제)

1953년 12월 15일 강원도 인제군 관대리에서 한국 최초의 야전군으로 제1군이 창설되어 1954년 3월 21일 미 제10군단으로부터 제1, 제2, 제3군단의 작전지휘권 일체를 이양받았다. 1953~1954년에는 제5, 제6군단을 창설하여 보병 20개 사단을 지휘, 155마일의 전선방어를 담당하게 되었다.



④ 제1군 작전지휘권 인수식(1954. 3. 15. 강원 인제)



④ 제2군 창설(1954. 10. 31. 대구)

야전군 창설에 뒤이어 1954년 10월 31일 예비전력 확보와 전군 군수 및 행정지원, 후방지역 경비 등을 담당하는 후방사령부로서 제2군을 대구에서 창설하였다. 제2군은 1955년 이하 5개 관구사령부를 창설하는 한편, 예비전력 확보책으로 10개 예비사단을 창설하였다.



④ 보병학교 제식훈련



① 교육총본부 본관

군은 1951년 8월 1일 부산에서 육본 내에 교육총감부를 설치, 교육업무를 관장하게 하다가 1956년 7월 6일 이를 독립시켜 전군의 군사교육기관을 통합, 지휘하는 기관으로 교육총본부를 대전에서 창설하였다.



① 전투병과 교육기지사령부에서 실시한 합동훈련 시범

육군은 1960년 5월 31일 교육총본부를 해체하고 행정, 기술병과학교를 육본에 예속시키는 한편, 전투병과 교육기지사령부를 전남 광주에서 창설하였다.

② 군수기지사령부 전경

1960년 1월 15일 제2관구사령부가 해체되고 각 군수기지창 및 기타 시설부대를 관장하는 통합기관으로서 부산에서 군수기지사령부가 창설되었다.



③ 병기기지창





① 한국 함대사령부 전경

1953년 9월 10일 제1함대를 해체하여 한국 함대를 창설하였으며 1955년 3월 1일 한국 함대를 다시 개편해 제1전단, 제2전단, 제31전대, 제51전대와 최고도의 함대훈련태세 유지를 위한 함대훈련단으로 개편하였다. 1954년 9월 1일 해군 참모총장은 남해 경비 및 봉쇄작전 지휘권을 미 제95기동함대사령관으로부터 인수하였으며 이어 1955년 1월 1일 동해, 1955년 3월 서해순으로 인수하였다.

② 해군 기술진이 최초로 제작한 수상정찰기 해취호(海鷲號) 명명식 장면(1951. 8. 25)

진해만 19만여 평에 자리잡은 공창은 1952년 5월 7일 조함창을 공창으로 개칭하고 장비 및 시설을 더욱 현대화하였다.



1954년 2월 1일 해병 제1전투단을 기간으로 해병 제1여단을 창설하였으며 1954년 3월 14일 미 해병 사단이 본국으로 철수함에 따라 독자적인 작전권을 확보하고 상륙전 훈련에 힘을 기울여 전투력을 강화 하던 중 1955년 1월 15일 해병 제1사단 창설로 발전하였으며 1958년 4월 15일에는 해병 제1상륙사단으로 개편되면서 전략기동부대의 임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금촌에서 포항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1959년 2월 26일 해병 제1임시여단을 창설하여 김포와 수도 서울을 방어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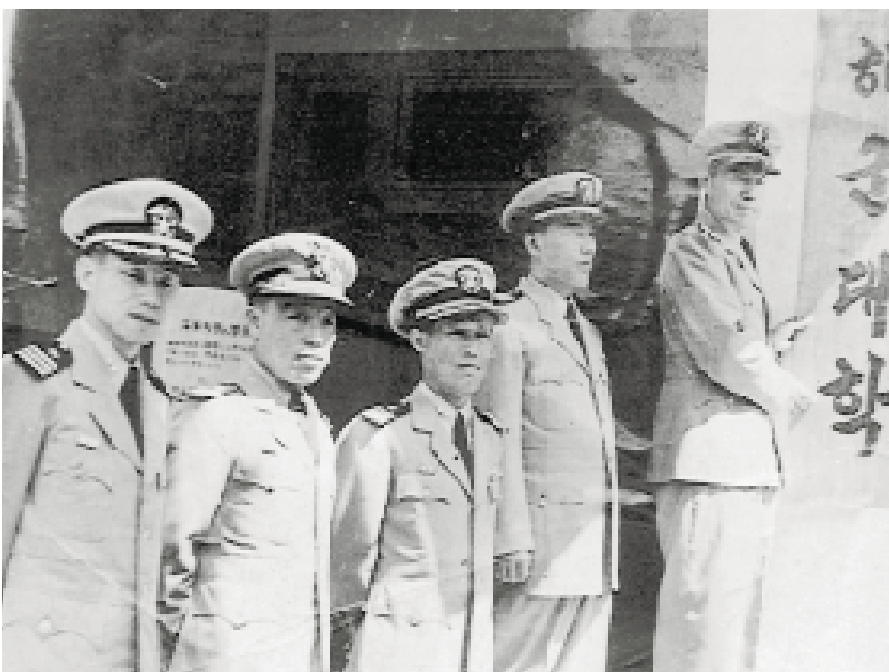
① 해병 제1여단 창설식(1954.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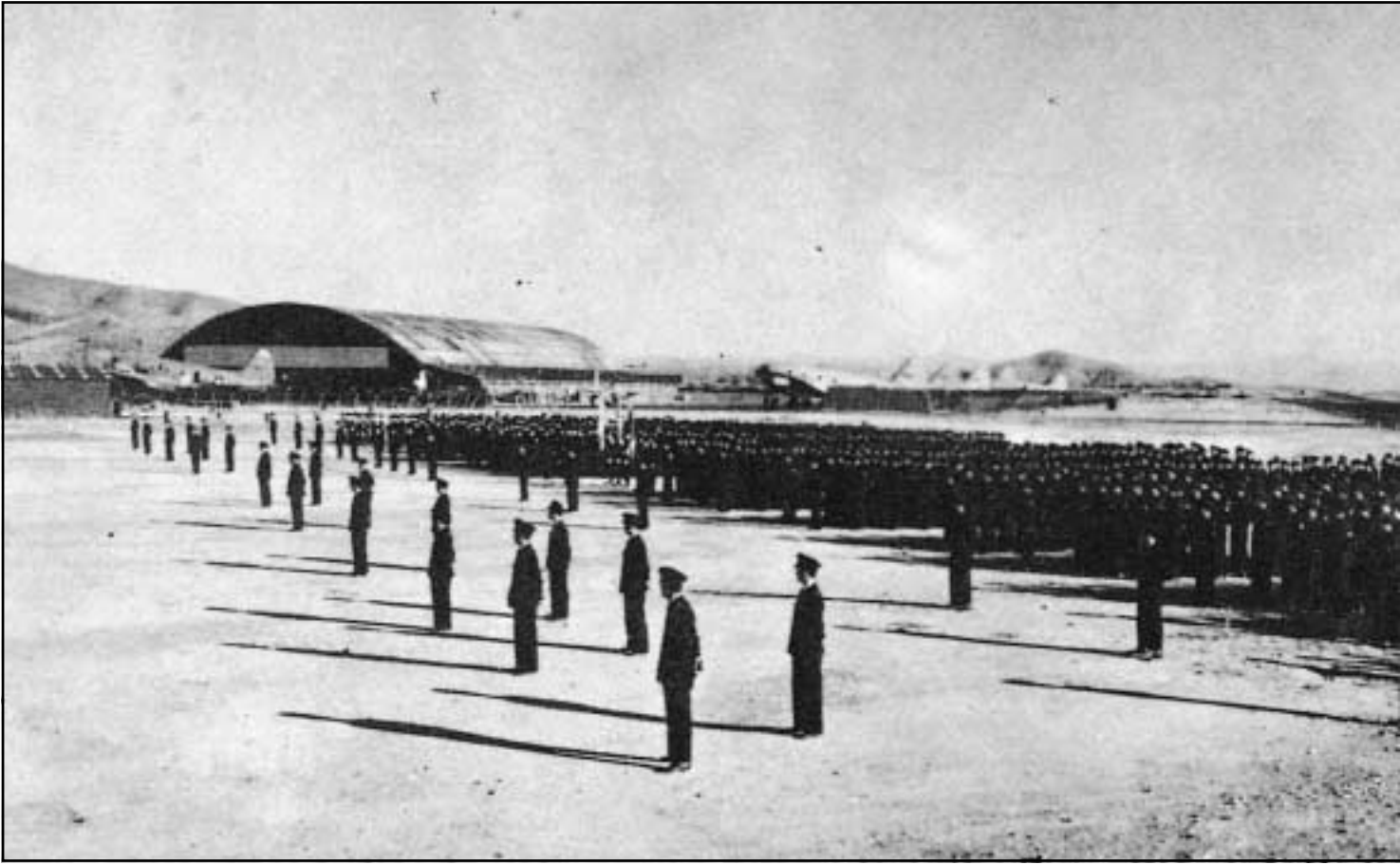
② 창설 당시 사단본부(금촌)



③ 미 해병 제1사단 이한식(離韓式)(1954. 3. 1)



④ 해군대학 현판식(1955. 7. 1)



④ 제7항로보안단 창설식(1955. 10. 15)

공군은 항로통신업무 일원화를 위하여 제50기상전대, 제60통신전대, 제70항로통신전대를 통합하여 대구기지에서 제7항로보안단을 창설하였다.



④ 공군대학 창설(1956. 7. 15)



① 항공관제사의 활동



① 제11전투비행단 창단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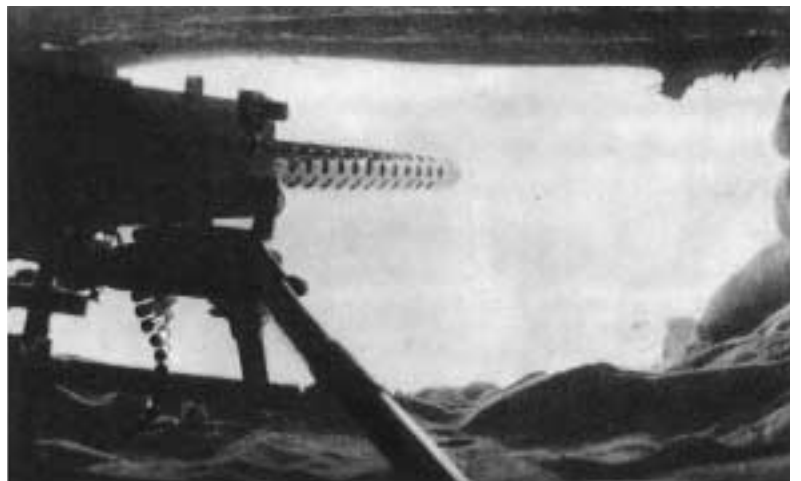
공군 현대화계획에 따라 1958년 8월 1일 제11전투비행단이 김포기지에서 창설된 이후 제31전술통제비행전대, 제32전술정찰비행대대, 제33구조비행대대 등을 잇달아 창설하여 전술공군체제를 갖추었다.



➊ 개선된 덤프 차량(1961)



➋ 도입된 106밀리 무반동총 사격(1961)



➌ LMG 기관총



① 8인치 포

② 40밀리 대공포





① 90미리 무반동총



② 81미리 박격포(배치 : 1950)

③ 155미리 곡사포(배치 : 1951)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 10. 1) 및 미국 해군 선박 대여에 관한 한·미 협정(1955. 1. 29)에 따라 새로운 함정으로 경비함(PCEC), 상륙함(LSM), 호위구축함(DE), 고속수송함(APD), 상륙로켓함(LSMR)을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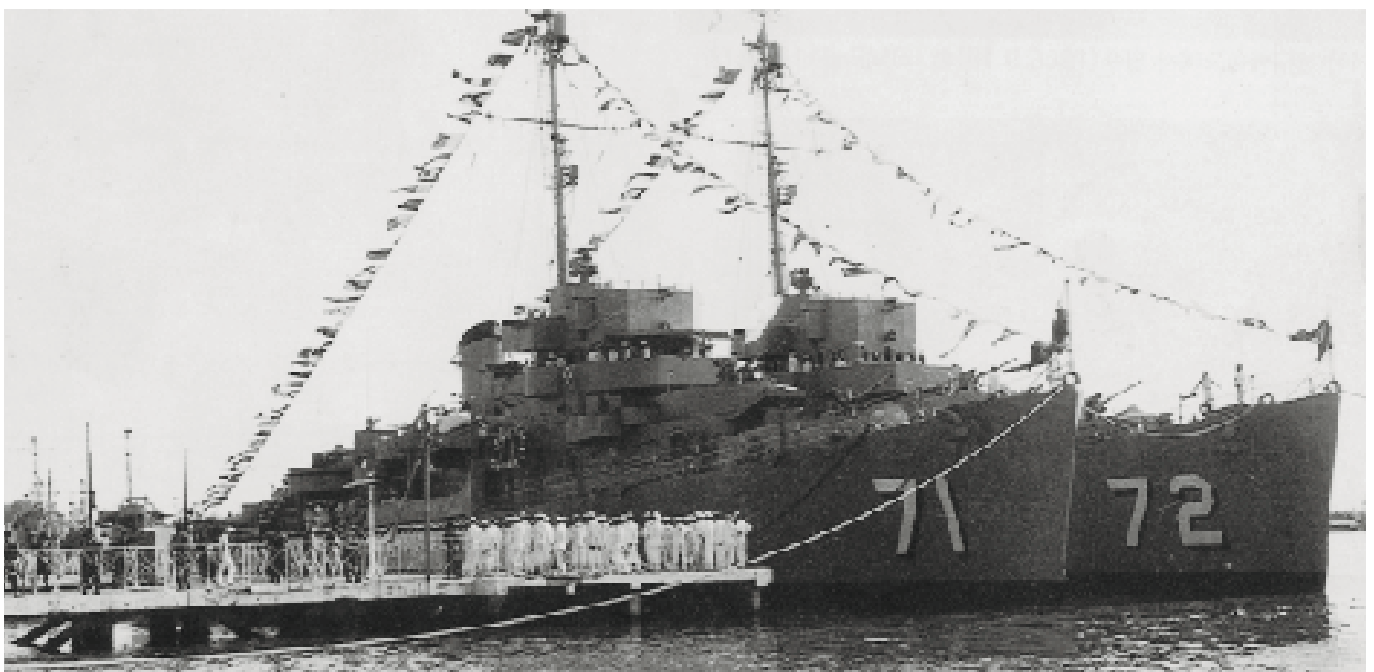


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수한 경비함(PCEC-51)(인수 : 1955. 2. 11)



② 미국 보스턴에서 인수한 호위구축함 (DE-71, 72)(인수 : 1956. 2. 2)

③ 상륙함(LSM-601, 602, 603, 605) 명명식(1955. 2. 16. 진해)





④ 미국 샌디에고에서 인수한 대형 상륙함(LST-807)(인수:1955. 3. 22)



④ 미국 롱비치에서 인수한 고속수송함(APD-81)(인수:1959. 10. 15)

④ 미국 샌디에고에서 인수한 상륙로켓함(LSMR-311)(인수:1960. 9. 15)





🕒 F-86F 전투기 도입

1955년 6월 공군의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도입한 최초의 후퇴익 1인승 제트전투기인 F-86F는 한국전쟁중 UN 공군이 MIG-15기 792대를 격추시킨 바 있는 우수한 전투기로 1960년대 한강 백사장에 어쇼를 주도했으며 1965년까지 공군 주력기로 활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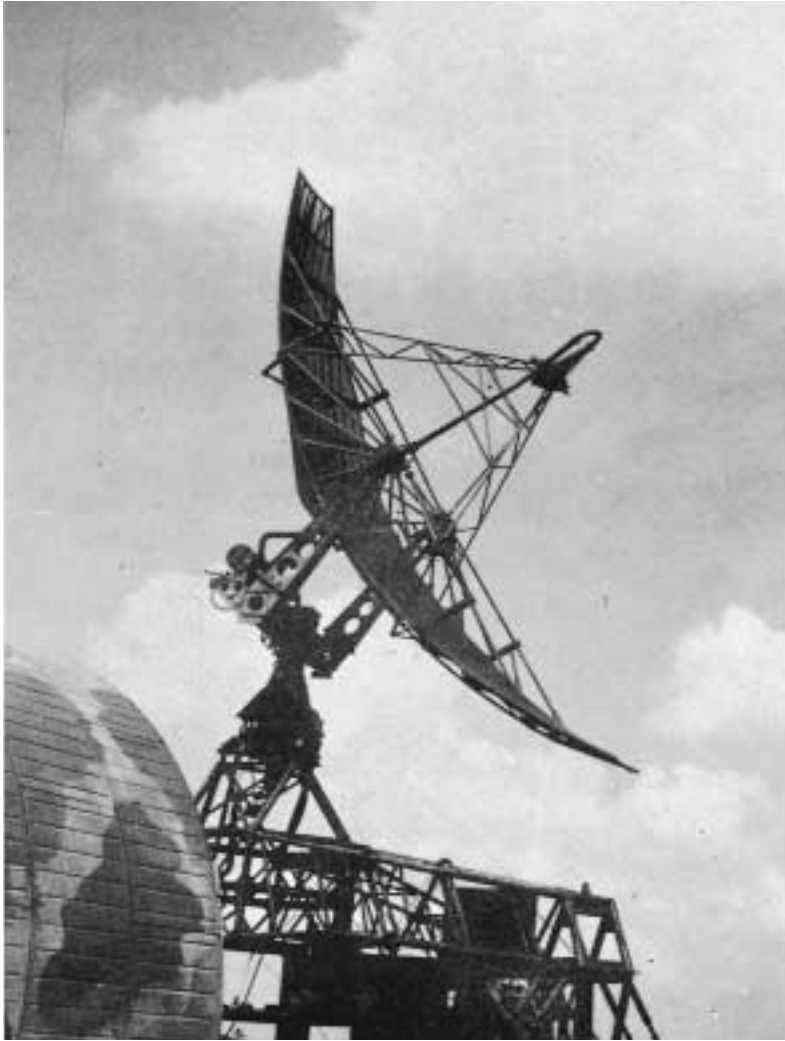


IL-26 항공기 도입(1954. 3. 24)



T-33 훈련기 인수식(1955. 8. 17. 오산기지)

1955년 8월 도입한 2인승 제트훈련기로서 본격적인 제트훈련기 시대를 개막하였고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한 최종 관문인 고등비행훈련에 활용하였다.



④ 미공군으로부터 인수한 방공관제 레이더

1956년 6월 평택 레이더 사이트 인수를 마지막으로 미공군이 운영하던 레이더 사이트를 전부 인수하여 조국 영공의 방공관제경보권을 장악하였다.



④ H-19D 헬기 도입(1958. 7. 16)

회전날개 3개를 갖춘 헬리콥터로서 구조 및 탐색 등 각종 군사작전에 사용해 왔으며, 1976년 퇴역되었다.



④ C-46 수송기 도입(1955. 4. 29)

1955년 4월 29일에 도입한 쌍발 프로펠러 수송기로 탐색 및 구조작전, 대간첩작전, 환자수송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되었으며 1978년 11월 30일 퇴역하였다.



④ RF-86F 정찰기 도입(1958. 4. 13)



④ 새로이 도입된 T-28 훈련기(1960. 12. 20)

공군력의 증강과 더불어 노후한 T-6 건국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한 2인승 훈련기로 중등비행훈련에 사용하였다.

정비능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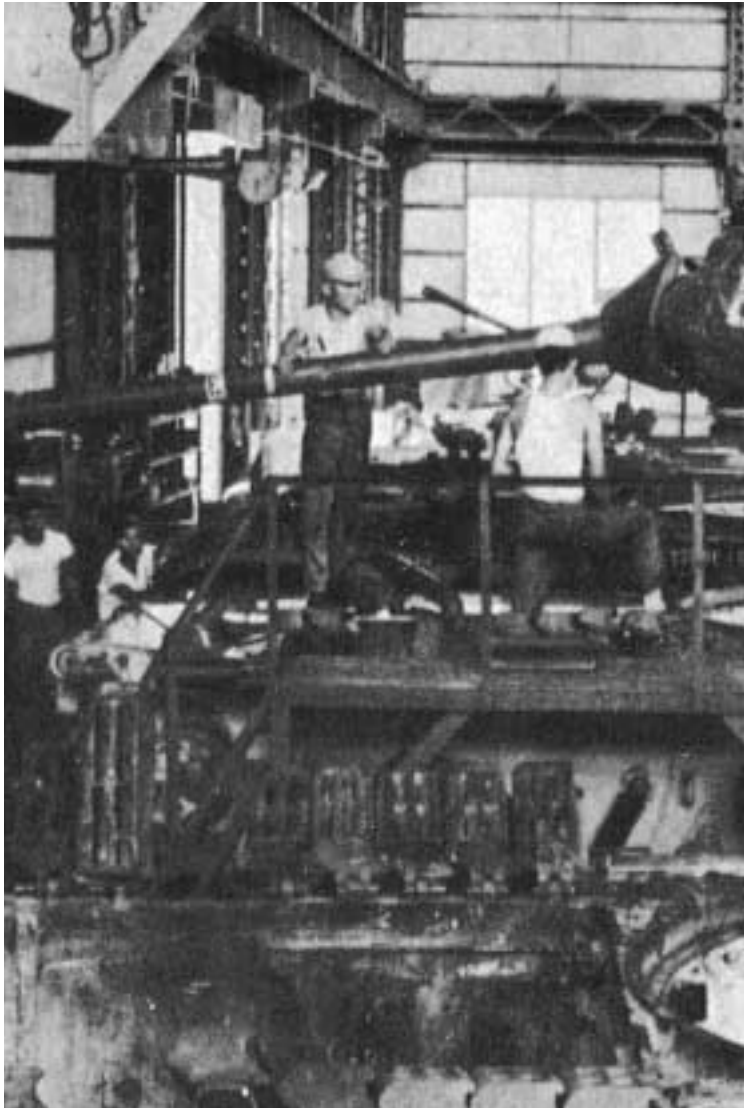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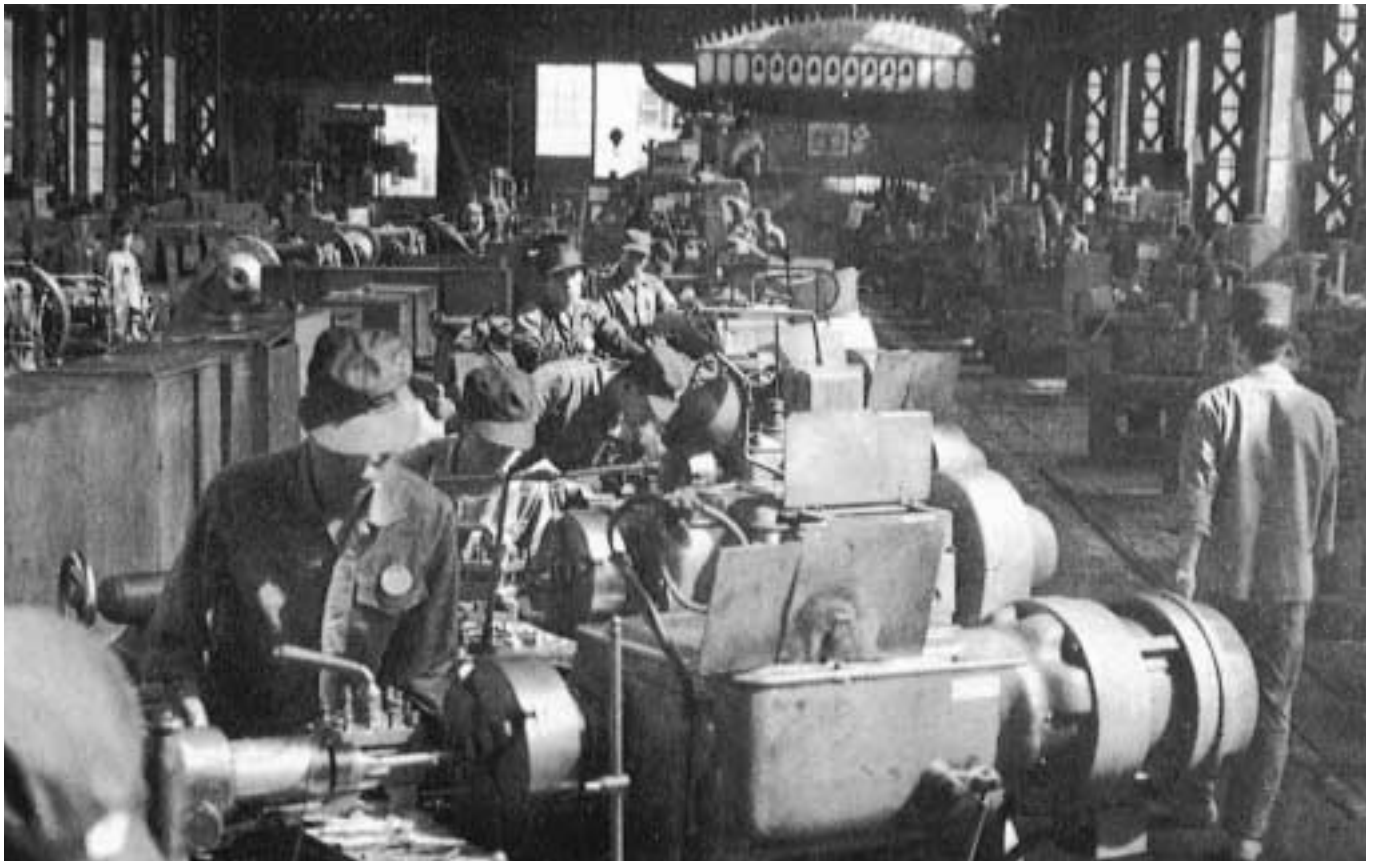
① 총포 정비(1961)

② 항공기 정비(1961)

③ 소총 정비(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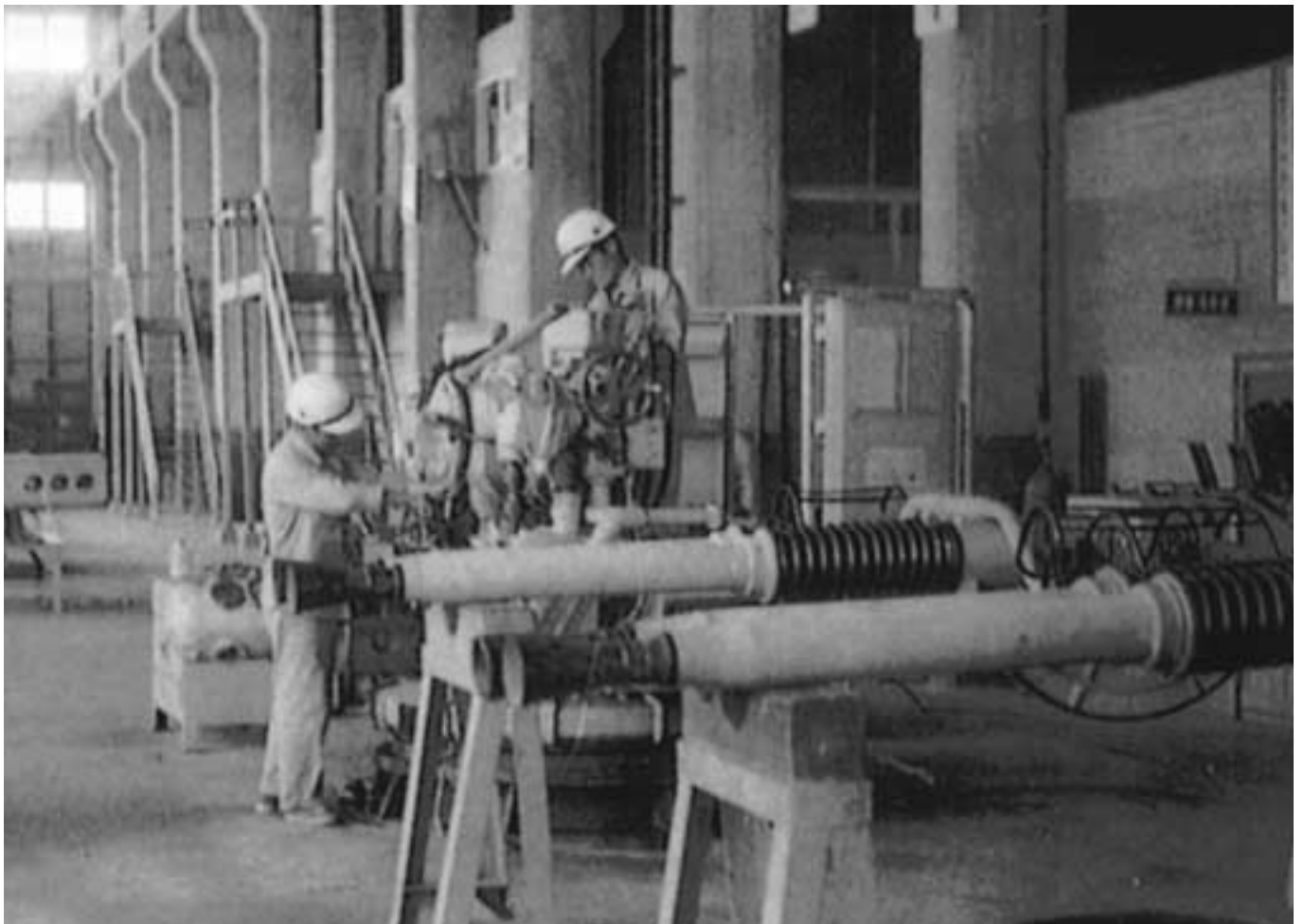
④ 전차 정비(1961)





① 기관공장

② 병기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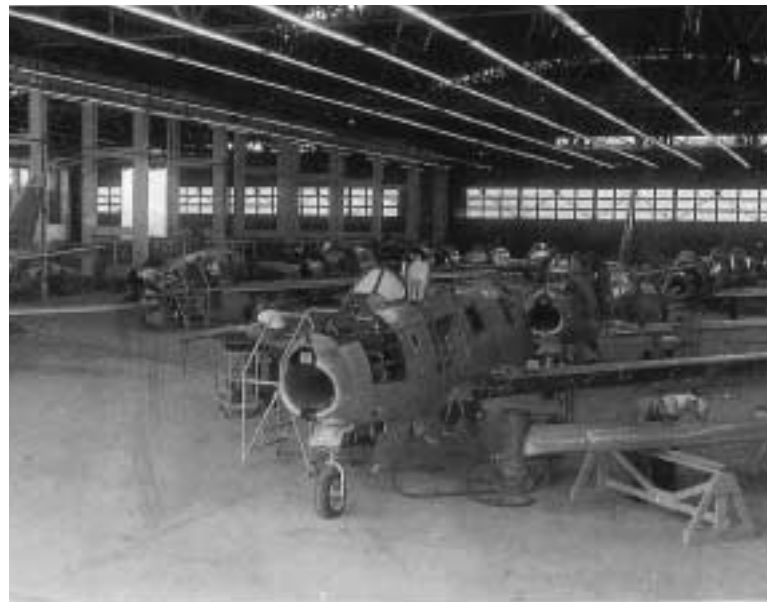




① 최초 PF함정의 정기 수리 성공(1955. 8. 30)



② L-형 창정비 성공(1955. 1. 27)



③ F-86F기 창정비 성공(1956. 12. 15)

국군의 날 제정

국군의 날이 제정되기 전에는 육군은 1946년 1월 15일,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해병대가 1949년 4월 15일로 창설일을 기념하여 왔으나, 1956년 9월 21일 대통령령 제1173호로 한국전쟁중 육군 제3사단의 38도선 돌파일인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 단일화하였다.

새로운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국군의 위용을 자랑하는 최초의 국군의 날 행사(1956. 10. 1. 서울)



군의 문맹퇴치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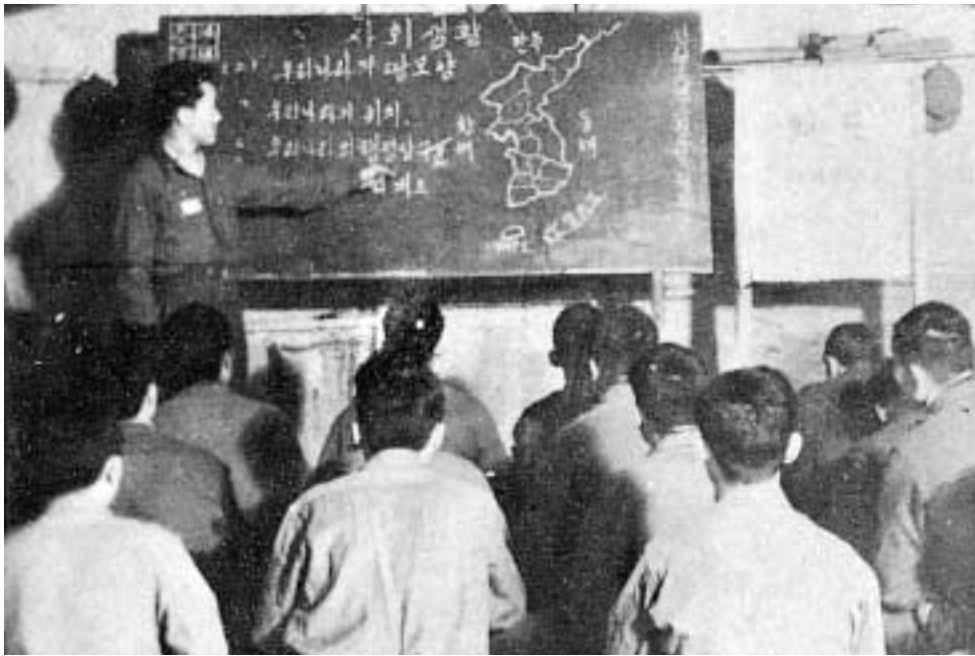
휴전 직후 육·해·공군에는 글을 모르는 문맹자가 234,954명에 달하여 사격이나 훈련은 물론, 사상무장·국가관 확립 등의 정신교육에서도 많은 지장과 불편을 초래하자 이에 국방부에서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습득을 위해서는 최소한 문자해독 이상의 기본적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문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① 11사단 고등공민학교(중학교 과정) 표지판을 문맹 군인학생들이 세우고 있다.



② 칠판을 가리키며 설명하는 교관이나 듣는 학생들의 자세가 진지하다.



㉠ 학생들이 우리 나라의 지리에 대해 배우고 있다.

군의 문맹퇴치 교육 실적

연 도	인 원(명)	연 도	인 원(명)
건군~1952	148,553	1956	23,511
1953	208,023	1957	15,477
1954	76,012	1958	10,444
1955	34,976	1959	6,447
계		523,443	

자료 : 육군본부, 정훈 50년사

㉡ 온통 돌로 만들어진 1사단 공민학교 건물



군의 전쟁 복구 활동

3년간에 걸친 치열한 전쟁으로 온 나라가 황폐한 상황에서 현대적 장비와 우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던 군은 미군의 공병자재를 지원받아 전쟁으로 파괴된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등 전후 복구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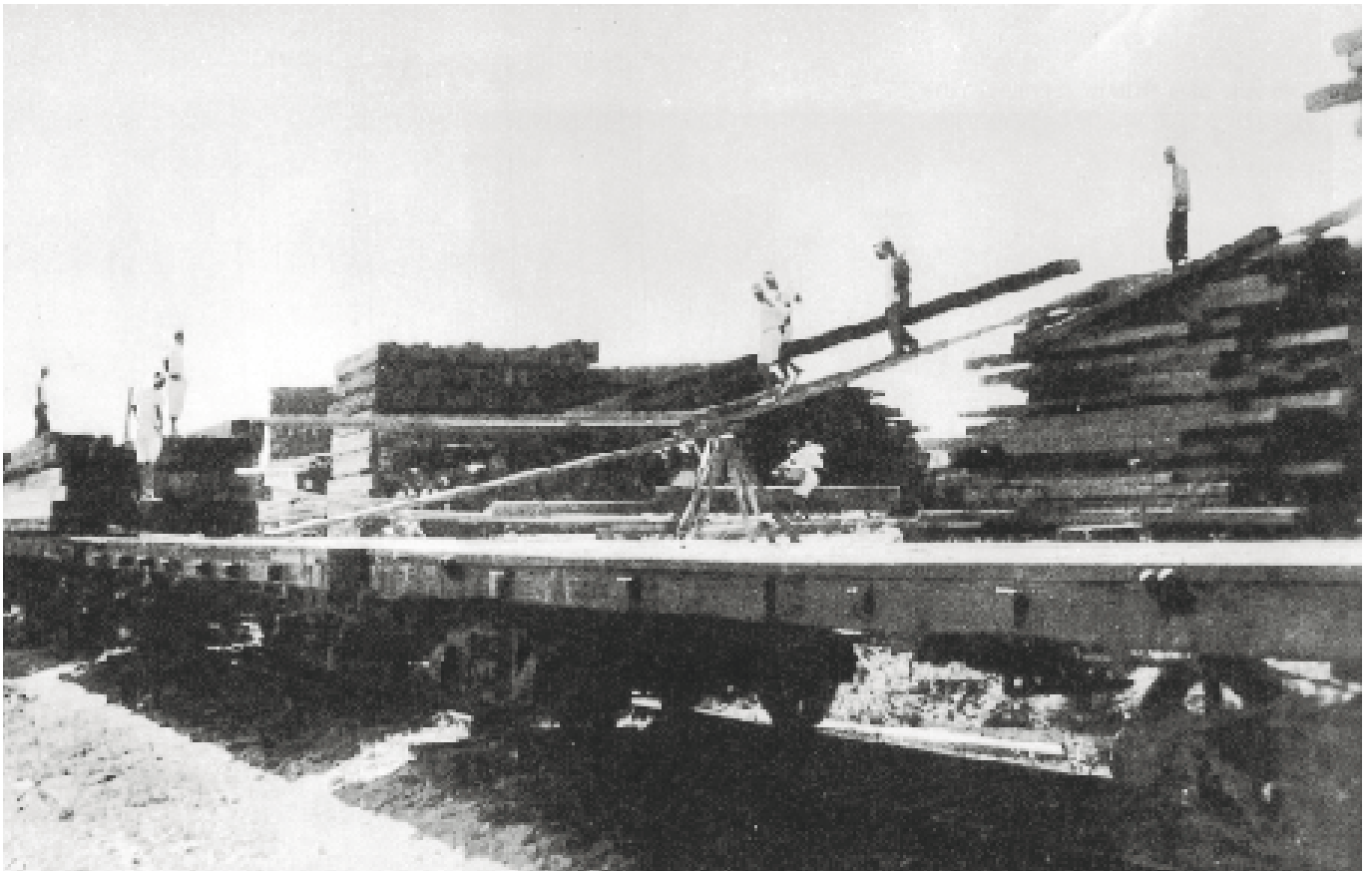


① 하수도 복구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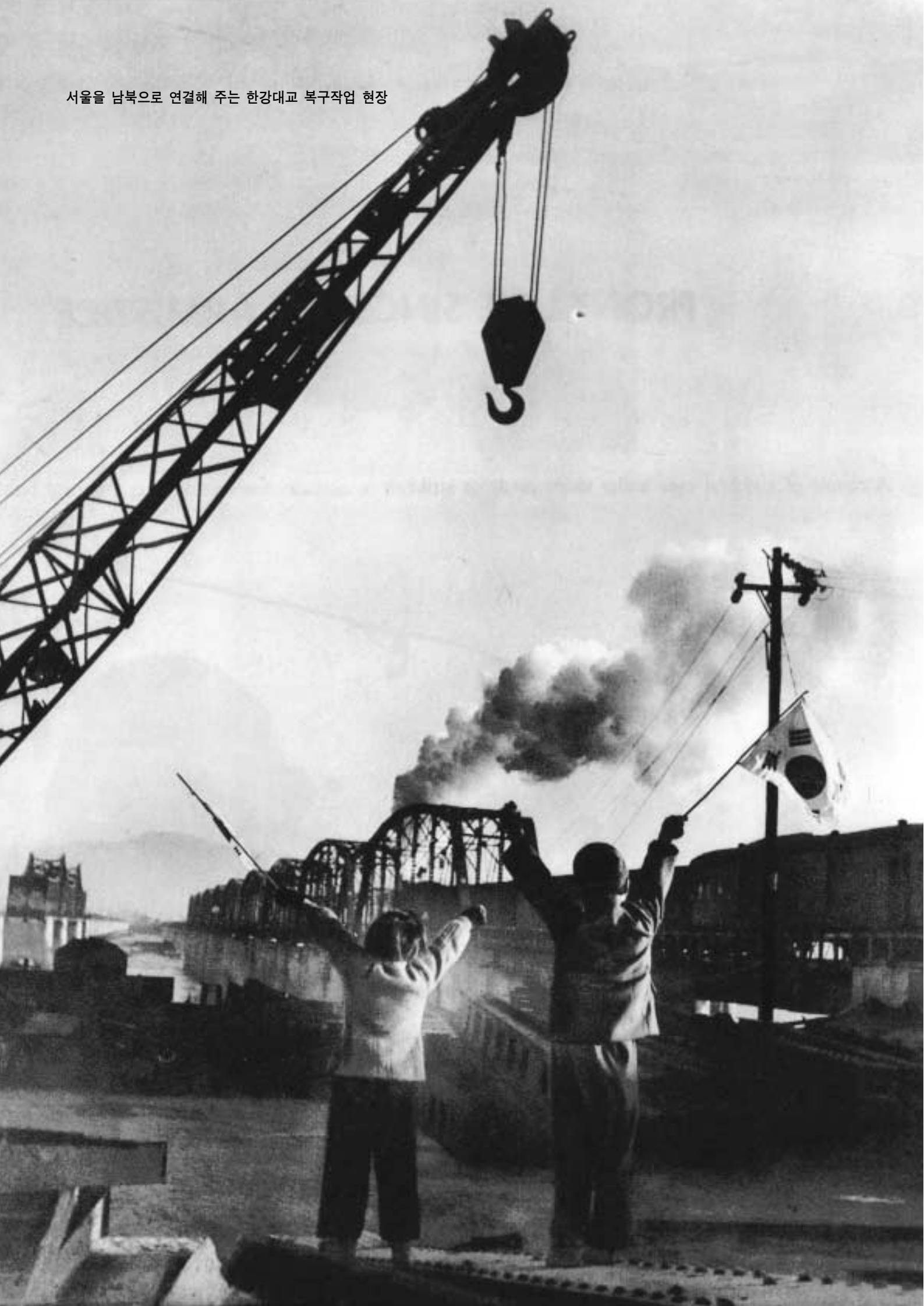


② 모래 운반

③ 황폐화된 국토에 새집을 짓기 위해 열차로 목재를 수송하고 있다.



서울을 남북으로 연결해 주는 한강대교 복구작업 현장





① 군인들에 의해 건설된 대구의 한 병원

② 1103야전공병에 의해 건설된 춘천고등학교

